

## News

### 은행株, 원화 강세 타고 '부진의 늪' 탈출하나

서울경제

신한지주 올 최저 증가 대비 27% ↑... 64% 오른 코스피 절반에도 못미쳐... 원화로 외화환산이익 늘어 실적호전... 보유비중 큰 外人 귀환땀 수급개선 금융주들은 원화 강세 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... 원 ·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외화자금조달 비용이 내려가고 외화환산 손익이 올라가 때문

### 금융위 "주택담보대출 규제 부작용 점검"

매일경제

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고 나서...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'풍선효과'가 작용했다는 판단 "최근 가계대출 중 50% 정도는 가계 생활 · 운영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"... "이 같은 자금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급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중"

### 추석 연휴, 중기·소상공인에 16.5조 특별대출·보증

헤럴드경제

금융위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 발표... 추석 연휴 기간 정책금융기관 통해 16조5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예정 기업은행은 신규 대출 3조원, 만기연장 5조원을 담당... 산업은행은 1.6조원 운전자금 신규 대출, 1.5조원 만기연장 지원.. 나머지는 5.4조원은 신보가 담당...

### 신용대출·주택담대 금리 차이 0.5%p 미만으로 쪼그라들어

연합뉴스

7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0.47%포인트에 불과... 금리 차이가 0.5%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이후 지난 6월과 7월이 처음... "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은행들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는지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"

### 수익성 개선 어려워... 잇단 보험사 매출에도 반응 '냉랭'

연합뉴스

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인수 · 합병(MA&) 매물이 쌓여가지만... 업계의 반응은 냉랭... "가격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검토를 진행했지만, 보험사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"

### 보험 '마구 팔아온' 법인대리점... 금소법에 위기 맞나

아시아경제

금소법이 법인보험대리점 성장세에 브레이크를 걸 전망... 금소법에는 불완전판매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... ""하지만 여전히 90% 이상 GA에선 설계사의 무리한 영업 관행이 지속된다. 강력한 금소법 시행이 GA 업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"

### 동학개미 등돌린 펀드시장 고사 위기

아시아경제

증시 V자 반등에 직접투자 열풍... 공모펀드 잔액은 7개월 새 5兆 ↓ ... 사모펀드 사고로 신뢰하락 탕도 "투자자들의 기대수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펀드가 추구하는 절대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"

### 증권사 회사채 발행 "예전 같지 않네"

헤럴드경제

라임 · 옵티머스 사태 악영향... 대신 수요예측 저조 未매각... 삼성 밴드 상단금리로 채워... 일부 대형사 발행계획 접기도... 증권사들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큰 인기를 끌며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

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